

일본차 스캔들에 한국차 반사이익?

스즈키·닛산 등 연비조작으로 신뢰성 저하... 인도·美·中서 국산차 수혜 가능성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잇따라 '조작'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도 스캔들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정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는 시선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연비 조작 등 스캔들에 휘말리며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 4위 자동차업체 스즈키는 지난 18일 경차 8종, 승용차 8종 등 모두 16개 차종 210만대에 대해 범을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비를 측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쓰비시차도 지난달 4종의 연비 조작을 실행했고, 파문이 퍼지면서 닛산으로 인수됐다. 닛산 역시 최근 국내에서 경유차 '캐시카'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일본 자동차 기업에 대한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본 자동차 전반에 대해 신뢰도와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의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일단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수혜를 입을지 주목된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올해 1~4월 판매량 기준 점유율이 16.9%로 스즈키와 현지 법인의 합작회사 마루티 스즈키(47%)에 이은 2위다. 3위는 인도의 마힌드라로 점유율 9.3%를 차지하고 있다.

스즈키와 격차는 크지만 매년 판매



게임도 가상현실로 최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참가자들이 VR(가상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다.

량이 늘고 있다. 2014년 41만대를 팔아 전년 대비 8% 성장했고 지난해에도 48만대를 판매해 17%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크레타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는 점유율 3위(1~4월 기준)로 미쓰비시, 스즈키를 앞섰고 미국에서는 이들 업체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본차들의 연이은 이미지 손상으로 해당 수요가 한국산 자동차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도 스즈키 제조 차량은 없고, 미쓰비시 차량은 자동차 등록 기준 1316대가 운행되고 있다. 닛산은 올해 1~4월 기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 2.46%를 차지해 10위권 수준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잇따라 스캔들로 소비자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일본 자동차업체 전반적으로도 영향이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

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연비조작 파문으로 경영난에 빠진 미쓰비시가 닛산에 인수됐듯, 이런 파문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기업에도 조작 파문이 퍼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적법과 불법은 종이 한장 차이"라며 "이런 스캔들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만큼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 국내 기업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1분기 해외 카드 사용액 3.8% 줄어

'환율 상승' 영향... 해외 여행객은 전분기보다 8.1% ↑

올 1분기 해외에 나간 여행객은 늘었지만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내국인(거주자)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직불카드 금액은 33억달러로 전분기(34억3000만달러)보다 3.8% 줄었다.

지난 1분기 설 구정 연휴와 겨울 방학 등을 맞아 해외로 나간 여행객이 556만명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8.1% 증가했지만 씬씨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해외에 나간 여행객들의 물품구매 수요 등이 감소했기 때문

으로 분석됐다. 1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200.9원으로 전분기(1157.1원)보다 상승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3억4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4.7% 줄었고, 직불카드 사용 금액이 1억800만달러로 10.4% 급감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8억5100만달러로 0.4% 감소했다.

한편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25억2200만달러로 지난해 4분기(25억6300만달러)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수가 359만명으로 전분기(365만명)보다 다소 줄어들면서 카드 사용실적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진수 기자

'포럼', 중국 진출 기업들 '전략 자산'

삼성, 선전 '모바일 솔루션 포럼' · SK하이닉스, 6~7월께 예정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수단으로 포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포럼이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업체들의 전략자산이 되고 있는 셈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거대 기업 뿐 아니라 로컬 기업들과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 전자 기업들이 '연결고리' 포럼 만들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 업체들의 부품 판매의 경우 B2B 사업이 중심이 돼야 해 기업 간 컨택이 절실하다.

삼성은 지난 19일 중국 선전에서 모바일 솔루션 포럼을 개최했다.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 배터리, 솔루션 서비스 등 중국의 IT·모바일 시장과 협력력이 필요한 제품들을 중국 기업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SK하이닉스는 오는 6~7월께 중국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지난해 역시 중국 선전에서 열었던 '2015 SK하이닉스 모바일 솔루션 데이'의 연장선상이다. 올해도 선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기업들도 중국 업체들과 컨택수단으로 포럼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19일 개막한 '한·중 반도체 국제 포럼(Korea-China Semiconductor TOP Forum)'은 다탕(Datang) 반도체, SMC, 화웨이(Huawei), 월든 인터내셔널(Walden International), 하이퐁 증권 등의 중국 반도체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책과 이에 따른 국내 기업 진출 방안 등을 제공했다. /안진수 기자

임종룡 "지역금융전문가 TF 출범시킬 것"

현장점검반 발굴 과제 실제 정책 반영... 9월쯤 '지역금융 발전전략' 발표 예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현장의 수요를 새로 출범할 지역금융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제9차 금융위원회'에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지역금융전문가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이 각 지역을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운영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과 부산 지역을 방문했고 앞으로 강원, 대구, 광주를 차례로 찾아갈 예정이다.

지역금융전문가 TF는 현장점검반이 발굴한 과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화·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TF에 지역은행, 상호금융, 자본시장(농어업분야), 지역산업, 학계, 현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 제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출범을 알린 지역금융전문가 TF는 이르면 오는 9월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 신규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이미 추진 중인 과제는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금융이 앞장서서 혁신 촉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인 스타트업·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민 자산증대, 농어업 분야 자본시장 역할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개선된 제도의 경우 지역 시장에 맞는 구체적 적용방법을 몰라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추가 개선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세심한 피드백을 할 계획이며, 자금조달, 고충 및 민원해소에 있어 불편을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진수 기자

금감원 "리볼빙 불완전판매 카드사 징계 검토"

금융감독국이 리볼빙서비스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카드사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카드사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리볼빙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징계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대상과 여부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위반 내용을 보고 징

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다"고 했다. 현재 전 카드사들의 리볼빙 최고금리는 25%를 웃돈다.

금감원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리볼빙 불완전 판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안팎으로는 다수의 카드사가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